야마

학명 고어문드

지구의 도룡뇽과 근연된 양서성 생물

신화시대에서는 남무여신에 의해 인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찢겨나간 악신의 피가 뭉쳐 태어난

실험체종족으로 알려졌다

지능은 인간과 비슷하며 식기류와 유사한 무기 및 방어구를 쓰고 있으며 외계종족 대부분이 그렇듯 다신교를 믿고 있다

이슈타르와 아스타르테여신을 신봉하는 퍼크(에겔시우스)족, 에레슈키갈 내외와 아스타로트신을 숭배하는 머크(레그릭스)종으로 나뉘며 서로 서식지가 다르다(지하굴속, 바위산)

공통적으로 길게 늘릴수 있는 여러가닥의 혀와 위산액을 통하여 흡입한 대상을 화약의 원리로 폭파시켜 발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남무여신에 의해 악신의 몸의 핏방울이 터진 것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퍼크는 투명한 녹색피부를 가졌으며 핵열속성을 보유 머크는 좀더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갈녹색피부에 우둘투둘한 몸체 폭발하는 엑상속성의 침을 발포한다.